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읽고

20211024

사학전공

김예인

싯다르타는 강물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책은,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줄로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강물에서 깨달음을 얻곤, 뒤를 돌아보니 무엇이 보이던가. 자신이 ‘놓아준’ 아들? 세속에서 만난, 자신이 생각하기엔 ‘하룻밤 사이의 꿈’만 같은 매춘부 카말라의 죽음?

싯다르타는 브라만 계급의 아들로써,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로소 ‘결핍’을 느끼고 여정을 시작한다. 이에 싯다르타의 여정이 근본적으로 ‘특권적인 포기’라는 역설 위에서 출발함을 시사한다. 특권적인 포기의 역설로, 과연 그 과정과 끝이 역설의 연속이며 오롯한 내면의 해방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의 초기 고행(사문생활)이 지독한 고행으로 묘사되지만, 정말 지독한 고행이었는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인지는 모른다. 이때 이 고행은 언제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선택이었으며, 세속으로의 회귀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속으로의 회귀는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필수적 일탈’로 정당화된다. 정당화를 바탕으로 싯다르타의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면죄부가 깔려있으며, 그의 방향과 타락을 최종적인 깨달음을 위한 ‘필연적인 재료’로 치환함으로써 그를 철저히 우상화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의 걸음에서 지나쳐 가는 모든 이들은 그의 우상화를 위해 사용될 재료이자, 훗날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을 묘사할 때 더욱 맛을 돋우기 위한 MSG인 것이다.

가장 많이 도드라지는 것은, 싯다르타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성 캐릭터들이다. 여성 캐릭터들은 ‘깨달음의 도구’ 혹은 ‘주인공에게 던져진 시련’이라는 기능적인 역할로서 존재한다. 특히 싯다르타가 세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성과의 관계 묘사는 때로는 불필요하며, 불쾌함을 낳는다. 이때의 불쾌함이란, 굳이 넣지 않아도, 혹은 넣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어 읽는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철학적인 깊이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구시대적인 가부장적인 시각이 녹아있다.

싯다르타가 세속의 여성에게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장면 - 갈색 젖꼭지에 입술을 맞추었다. - 과 이어서 욕망을 ‘내면의 목소리’로 극복하며 곧바로 여성을 ‘발정 난 암컷’으로 비하한다. 이는 작가가 싯다르타의 내적 순결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서사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으나, 반대로 작가가 할 수 있는 장치의 한계를 볼 수 있다. 내면적 순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나보다 더 낮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는’ 장면인 것이다. 싯다르타는 여성과의 육체적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그 행위를 멈추게 한 주체를 ‘내면의 고결한 목소리’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합리화하고 여성에게 모든 원죄와 탐욕의 이미지를 덧씌운다.

매춘부 카말라와의 관계는 이러한 타자화의 정점을 찍는다. 싯다르타는 카말라에게서 그녀가 터득한 예술(사랑과 성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지만,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가 아닌 때로는 연인으로서, 친구로서, 성적인 거래와 수단으로써 작용된다. 그는 카말라를 통해 세속의 쾌락과 물질주의를 깊이 경험하지만, 그 관계의 끝에서 ‘사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며 손쉽게 떠난다. 싯다르타에게 몸과 지혜는 그저 ‘세속이라는 장소’를 경험하기 위한 일회성 수업 교재일 뿐이었다. 또한 카말라가 터득한 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작가도, 독자도, 그 누구도 카말라가 왜 그러한 ‘예술’을 배웠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카말라가 배울 수 밖에 없었던 예술이 무엇인지. 그녀는 매춘부로서 정점을 찍었으나, 과연 이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작중에서 싯다르타는 카말라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카말라의 외모를 보고 순간적으로 내뱉은 그의 감탄사이자, 그녀에게 깊이 빠졌음을 시사하는 단어으로써 작용한다. 예술이라고 표현해서 아름답게 덧칠해질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말라는 싯다르타에게 물질적 세계를 가르치는 동시에, 서사적인 측면에서 그의 죄의식과 고통을 상징하는 사건을 이루는 조각 하나로 존재한다. 그가 그녀에게 돌아서는 순간, 카말라의 가치는 소멸하고, 이후 카말라의 임종과 아들의 등장은 싯다르타의 다음 단계의 깨달음 - 아버지의 사랑 - 을 위한 또 다른 재료로 활용될 뿐이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카말라의 성도, 카말라의 육신도, 영혼도, 삶도.

싯다르타가 찾는,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 진정 자신이 혼자 이루어 낸 것이 맞는가?

싯다르타의 깨달음은 철저히 배제와 취함을 따른다. 싯다르타는 그의 스승(고타마)를 배제하고, 여인(카말라)과 아들(소싯다르타)를 배제하고, 부(카마스와미)를 배제한다. 이들을 자신의 구도 행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규정하고 떠나며, 자신의 발걸음의 목적지를 ‘자아의 순수성의 회복’이라 정한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목적지(자아의 순수성의 회복)를 위해 이들의 존재(카말라의 가르침, 아들의 미움, 강물의 흐름)를 철저히 취하고 학습한다.

싯다르타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용하고 버렸던 타자들의 희생과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강물’을 통한 최종적인 깨달음 - 모든 것이 하나이고 동시에 흐른다는 - 은 보편적인 진리일지 몰라도, 그 진리에 도달하는 싯다르타의 걸음은 지극히도 이기적이고, 잔인하다. 싯다르타는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혼자서 삶,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닌,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를 말하고 싶었다면 성공적이다. 그렇게 보인다.

우리는 싯다르타를 보며, 싯다르타가 아닌 제 3자으로써, 때로는 그의 시각으로써 세상을 바라본다. 그 과정에서 ‘지혜는 말로 가르칠 수 없으며,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알게된 싯다르타의 삶을 들여 보면 가히

한가지 색채로 물들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 세속의 삶을 단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나 버려야 할 오물로 치부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주는 색채는 지극히 단조롭고, 불쾌하다. 쇠타의 깨달음은 그가 강물속에서 타자들과의 단절이 아닌 합일을 보았을 때 완성되었으나, 그의 서사는 그 합일의 여정에서 여성 인물들을 비롯한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주체성을 빼앗았다는 점이 존재한다. 강물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무엇이 보이던가? 한때 나에게 예술을 알려주었던 매춘부 여성? 뒤늦게 찾았지만 또 다시 ‘놓아준’ 아들?